

劉震雲 소설 속의 ‘附錄’ 연구

金玄珠*·崔桓**

〈目次〉

I. 들어가는 말	1. 서민의 일상에 대한 인식
II. ‘附錄’의 구조	2. 가정 문제에 대한 인식
1. 단독 附錄 형식	3. 효에 대한 인식
2. 본문과 附錄의 반복 형식	4. 권력과 관료주의에 대한 인식
3. ‘附錄+正文’ 형식	5. 미래에 대한 인식
III. ‘附錄’의 서사 의도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류전윈(劉震雲)은 중국의 신사실소설과 신역사소설의 대표 작가이며 현실주의 경향의 소설을 많이 창작한 대표적인 當代 작가이다. 특히 신사실 소설의 전형적인 작품인 <타푸(塔鋪)>와 矛盾文學賞 수상작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 마디(一句頂一萬句)》는 중국 당대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한국에도 이미 잘 알려진 작품이다. 이 중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 마디》는 중국인의 ‘백 년의 고독’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와 함께 ‘當代的 걸작(神奇之作)’¹⁾으로도 평해진다. 신역사소설의 대표작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講師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教授：交信著者

1) 陳曉明, <“喊喪”、幸存與去歷史化——《一句頂一萬句》開啟的鄉土于敘事新面向>, 《南方文壇》 第5期, 2009, 5頁.

중 하나인 《고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故鄉相處流傳)》는 황당한 역사 서사와 함께 당대 문학에서 권위 있는 작품에 대한 패러디의 서막을 연 작품이며,²⁾ 《고향의 국수와 꽃(故鄉麵和花朵)》은 작가가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거작으로 중국어 소설 중 ‘가장 기이하며 황당한(奇異怪誕)’³⁾ 소설로 평해지기도 한다. 이상에서 보면 문학적 가치 면에서 류전원은 ‘大作家’라고 칭해도 지나침이 없으며,⁴⁾ 루쉰에 비견될 정도로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고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고 과감히 창작에 반영해 내는 작가임에 틀림없다.

류전원의 몇몇 소설에는 附錄, 附記, 前言, 正文, 然後, 之後 등 다양한 형식을 구조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 附錄을 붙인 점은 특기할 만하다.

附錄이란 일반적으로 본문 뒤에 붙이는 것으로 본문과 관련된 문장이나 참고자료 성격의 글이다. 일반적으로 책의 편집 형식에 사용하는 용어로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을 달지 않아도 본문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류전원은 왜 이 ‘附錄’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소설 구조의 일부로 삼았을까? 그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 소설의 구조 형식에는 어울리지 않는 附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용어의 의미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附錄이라는 단어를 통해 작가는 오히려 작품 ‘읽기’에서 독자들에게 일어날 일정한 효과나 後果를 미리 상정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가의 이러한 특이성 구조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류전원의 이러한 특이하고 다양한 附錄 사용 구조는 서사의 필요성을 위해, 혹은 작가의 주제意識의 심화를 위해서, 혹은 현대사회를 비판하려는 은유의 방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附錄 사용 구조가 작가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본 연구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2) 金麗霞, 《走不出的困惑》, 黑龍江大學碩士學位論文, 2004, 3頁.

3) 陳曉明, 《故鄉麵與後現代的惡之花—重讀劉震雲的《故鄉麵和花朵》》, 《解放軍藝術學院學報》第3期, 2004, 12頁.

4) 摩羅, 《劉震雲: 奴隸的痛苦與耻辱》, 《當代作家評論》第4期, 1998, 5-7頁.

본고에서는 류전윈의 소설 중 짧고 간결함으로 대표되는 附錄을 사용한 작품 6편을 중심으로 소설의 구조적인 면에서의 附錄의 형식과 함께, 附錄의 기법적 측면에서의 서사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⁵⁾

II. '附錄'의 구조

6편의 작품 중 附錄의 명칭을 보면 <1942년을 돌아보다(溫故一九四二)>(1993)와 <<고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故鄉相處流傳)>>(1993)와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我不是潘金蓮)>>(2012)와 <<네티즌 시대의 젊은이들(吃瓜時代的兒女們)>>(2017)에는 '附錄'을 붙였고, <<고향의 국수와 꽃>>(1998)에는 '附錄'과 함께 '四部總附錄'도 붙였으며, <<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1991)에는 '附記'를 붙였는데 附記와 四部總附錄도 附錄과 같은 개념이다. 附錄을 첨가하는 위치와 방법도 작품에 따라 다양하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단독으로 附錄을 붙이는 경우,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특정 章의 뒷부분에 附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附錄+正文'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본장은 위의 작품을 '단독 附錄 형식', '본문과 附錄의 반복 형식', '附錄+正文 형식'으로 나누어 형식적 측면에서 附錄의 구조를 살펴본다.

1. 단독 附錄 형식

단독 附錄 형식에는 <1942년을 돌아보다>와 <<고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1942년을 돌아보다>는 1942년부터 1943년 대기근 때 허난(河南) 인민

5) 본 연구에서는 附錄과 함께 附記와 四部總附錄도 附錄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소설의 본문에 해당하는 前言, 然後/之後, 正文도 附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附錄과 병행하여 논하고자 한다.

의 3천만 명 중 3백만 명이 굶어죽은 일을 기록한 탐문조사체 소설이다.

이 소설은 제1장부터 제7장까지 본문 부분에 당시의 재해 상황을 기록한 후 마지막에 단독으로 附錄을 첨가한 구조이다. 본문에서 당시 허난의 상황과 장제스의 상황, 친지와 고향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한 내용, 문헌이나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 구호 이야기, 메뚜기의 습격과 일본군이 허난성에 입성한 일 등을 나열한 데 이어, 마지막에는 ‘두 건의 이혼성명’을 附錄으로 부쳤다.

附錄의 첫 번째 이혼 공고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한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 공고는 한 남자가 돈과 물건을 들고 도망간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파기한다는 내용이다. 긴박했던 당시의 재해 참상과 항일전쟁 및 국제정세 등과 비교해 보면 附錄과 본문은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적으며, 구조면에서도 긴밀하지 않은 느슨한 구조를 보인다.

《고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東漢末부터 明初와 清末을 거치며 대약진운동에 이르기까지 고향 연진(延津)을 중심으로 권력을 둘러싼 이야기가 전개되며, 맨 마지막 부분에 附錄이 첨가되었다. 각 단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며 역사적 인물과 일부 역사적 사건은 왜곡되었다.

《고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의 제1段的 ‘조 승상 옆에서(在曹丞相身邊)’는 曹操와 袁紹의 官渡大戰 이야기가 나오며, ‘然後’에서는 전쟁 후 조조와 원소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만나 안부를 물으며 같이 劉表와 孫權을 치자고 하는 내용이 91字로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 제2단 ‘큰 회화나무 아래에서 부모님과 이별하다(大槐樹下告別爹娘)’의 본문에는 明初 朱元璋이 거짓말과 폭력으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을 연진에 강제 移住시키고 살아남은 이들을 노예로 만든 이야기, ‘然後’에는 이주 20년 후 주원장이 연진 지역을 시찰 나온 이야기이다. 제3단 ‘나는 陳玉成을 죽였다(我殺陳玉成)’에서 清末의 西太后도 조조처럼 자신의 敵인 진옥성에게 조금이라도 동조한 연진 사람들을 처형한다. ‘然後’에서는 연진의 불거리인 서태후의 행궁과 1990년 지어진 진옥성 기념탑을 소개하였다. 제4단 ‘1960년에 외할머니를 따라 성에 들어가다(六十年隨姥姥進城)’에는 대약진운동 때 나오

외삼촌(姪舅)과 주단(豬蛋)의 권력투쟁 및 대기아로 인해 굶어 죽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이어서 附錄에는 엔진의 심각한 기아 현황 및 기아 지역을 방문한 지도자와 외할머니와의 대화 장면이 나온다.

제1장과 제2장의 然後는 앞의 본문과 내용 및 구조면에서 긴밀한 구조를 이루며, 제3장은 현재로 돌아와 엔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비교적 느슨한 구조를 보이며, 각 장의 然後는 附錄의 성격에 비교적 가까우며, 3쪽 분량으로 짧게 추가된 附錄은 然後가 확대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본문과 附錄의 반복 형식

본문과 附錄이 여러 번 반복되는 형식으로 《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과 《고향의 국수와 꽃》을 들 수 있다.

《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은 마촌(馬村) 사람들의 권력을 둘러싼 죽음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제1장부터 제4장까지 각 장별로 前言과 附記가 규칙적으로 반복 배열된 구조이다. 제1장부터 제3장의 前言 뒤에 附記가 있으며, 제4장 뒤에는 附記1과 附記2와 之後가 이어진다. 附記는 附錄과 같은 개념이며 之後도 《고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의 然後와 같은 개념인데, 《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은 류전원 소설의 附錄 운용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

장의 제목은 해당 章의 중요 사건을 요약하거나 암시하였다. 제1부분 '촌장의 피살(村長的謀殺)'에는 민국시기에 촌장을 둘러싼 쑨라오위안(孫老元) 집안과 리라오시(李老喜) 집안의 권력싸움이 이어진다. 제2부분 '귀신이 오다(鬼子來了)'에서 쑨스건(孫屎根)이 팔로군에 들어간 이유는 정치적 신념이 아닌, 원수 집안인 리샤오우(李小武)가 먼저 중앙군에 입대했기 때문이며, 이후 경솔하게 감정에 이끌려 팔로군에 입대해서 대사를 그르쳤다고 후회하기도 한다. 제3부분 토지개혁 시기인 '해방(翻身)'에서는 자오즈웨이(趙刺猬)와 라이허상(賴和尚)이 권력을 잡고 계급투쟁을 벌이며, 附記에서 출세를 꿈꾸던 리샤오우는 공산당의 소탕작전으로 죽음을 당한다. 제

4부분의 ‘문화대혁명(文化)’에서는 자오즈웨이와 라이허상과 웨이둥(衛東), 웨이바오(衛彪) 등의 권좌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투쟁이 이어지며 뒤에 附錄이 있다. 이 소설에서는 치열한 권력싸움이 네 단계에 걸쳐 역사적 단계별로 유사하게 반복된다.

《고향의 국수와 꽃》은 전체 네 권이며, 앞의 세 권은 가상의 미래 세계를 이야기하며 제4권에서는 현대인 1969년으로 돌아온다. 이 소설은 제1권의 시작 부분에 ‘일부 창작 자료 출처(部分寫作資料來源)’라는 간단한 알람글이 있으며, 팩스 전문과 암호에 서신 및 附錄과 노래에 이어 四部總附錄 등 각종 양식이 서사에 동원되었다.

《고향의 국수와 꽃》의 제1권과 제2권은 ‘前言券’으로 머리말에 해당하고, 제3권은 ‘結局券’으로 결말에 해당하며, 제4권은 ‘正文’으로 소설의 본론에 해당한다. 제4권이 본문인 셈인데 머리말과 본문의 비율이 전도되었다.

《고향의 국수와 꽃》은 권별로 각각 열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 장의 뒷부분에 서로 다른 내용의 附錄이 첨가되어 있는데, 附錄의 사용이 빈번하다. 특히 제4권 마지막 부분에는 四部總附錄이 붙어 있다. 附錄이 첨부된 권별 장 제목을 보면, 제1권의 제10장 ‘나오 외삼촌이 나에게 보낸 밀령(孀舅發給我的一份密令)’, 제2권의 제3장 ‘샤루(瞎鹿)와 발 바바(巴兒·巴巴)’와 제8장 ‘비틀즈 시대(披頭士時代)’, 제4권의 제1장 ‘자전거 1969(自行車 1969)’, 제2장 ‘태양꽃 형수(太陽花嫂)’, 제3장 ‘그 외의 소리와 춘하추동(之外聲音與春夏秋冬)’, 제4장 ‘라오량 할아버지의 채찍질에 관한 새 주석(老梁爺爺鞭笞新注)’, 제5장 ‘구호와 호박(口號與面瓜)’, 제6장 ‘동시莊(東西莊)의 다리’, 제8장 ‘외삼촌(娘舅)’ 등이다. 이 중 제4권 제6장에는 附錄이 무려 4개나 첨부되어 있다.

《고향의 국수와 꽃》의 章에는 ‘삽입 페이지’의 의미인 插頁이 몇 군데 보인다. 제2권의 제8장과 제9장 중간의 ‘插頁: 단절(斷裂)’이라는 장과, 제

6) 면과(面瓜)는 호박의 일종인데 이 소설에서의 면과는 뉴건(牛根)의 별명이다. 면과의 식감이 비교적 부드러워서 유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형용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호박처럼 약하고 물러터진 뉴건을 형용하는 별명으로 쓰였다.

3권 제2장 '插頁: 마지막으로 함께 한 시간(最後的相處)'과, 제4권 제10장의 '插頁: 四部總附錄'이 있다. 제4권의 插頁은 내용 면에서 전체 소설 구조와 차이를 보인다. 四部總附錄에서는 《水滸傳》과 《三國演義》와 〈琵琶引〉 등 문학작품을 실었는데, '四部總附錄'은 全篇을 아우르는 附錄의 개념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附錄과 插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향의 국수와 꽃》의 附錄과 插頁

	附錄과 插頁
권1 序言卷	· 附錄(1): 제10장
권2 序言卷	· 附錄(3): 제3장(附錄1, 附錄2), 제8장 · 插頁: 제8장과 제9장 사이
권3 結局卷	· 插頁: 제2장
권4 正文	· 附錄(11):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附錄1, 附錄2, 附錄3, 附錄4), 제8장(附錄1, 附錄2) · 插頁: 제10장 四部總附錄: 1. 投宿, 2. 敵人, 3. 有朋自遠方來

류전원은 《고향의 국수와 꽃》에서 자신의 외할머니를 이해해야 자신의 작품과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소설을 집필할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류전원은 외할머니를 추억하기 위해 두 개의 장을 할애해서 외할머니를 추억했다. 제2권의 '插頁: 斷裂'에서 어릴 때부터 샤오류를 키워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샤오류의 마음속의 고향도 끝났다."고 선언한다. 제4권 四部總附錄의 〈투숙〉은 《수호전》의 어머니를 '외할머니'로 바꾸었다. 이 소설은 외할머니의 고향의 역사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7) 劉震雲, 《故鄉麵和花朵》, 北京, 華藝出版社, 1998, 993頁, “小刘儿心中的故乡也因此断裂.”

3. ‘附錄+正文’ 형식

附錄 뒤에 正文이 이어진 구조는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와 《네티즌 시대의 아이들》이 있다. 두 소설은 ‘前言/序言 + 附錄 + 前言/序言 + 正文’의 구조로 서로 유사한데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의 序言과 《네티즌 시대의 아이들》의 前言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의 서사 구조는 제1장부터 제3장까지 ‘序言: 그해, 附錄, 序言: 20년 후, 正文: 장난’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附錄은 1쪽 분량이며 리쉐롄(李雪蓮)의 상방으로 인해 여러 명의 공무원이 면직된 일을 기술했으며, 正文은 10여 쪽에 불과하다. 正文은 소설의 본론에 해당하며 분량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류전원의 《고향의 국수와 꽃》과 《네티즌 시대의 아이들》 및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는 머리말인 前言/序言과 본론에 해당하는 正文의 비율이 전도되었다.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에서 친위허(秦玉河)로부터 해론 ‘潘金蓮’이라는 오명을 들은 리쉐롄은 오명을 벗기 위해 전남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관료들도 고소하기에 이른다. 이 소설은 처음 친위허 한 명으로 시작된 고소가 20년 동안 고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미가 코끼리가 되듯 고소 인원도 늘어나고 일도 점점 커져서 독특한 ‘나팔형 구조’(◁)를 이룬다.⁸⁾

최근에 발표된 《네티즌 시대의 젊은이들》은 전체 세 부분 중 제1부분 前言의 뒷부분에 ‘附錄1’과 ‘附錄2’를 연달아 붙였다. 전체 구조를 보면 ‘제1부분 前言: 서로 모르는 몇 사람(幾個素不相識的人)’, ‘제2부분 前言: 너는 모두를 알고 있다(你認識所有人)’, ‘제3부분 正文: 마사지업소(洗腳屋)’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분은 다시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뉴샤오리(牛小麗), 리안방(李安邦), 너는 모두를 알고 있다(你認識所有人), 양카이퉁(楊開拓), 뉴샤오리, 附錄1, 附錄2’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8) 김현주, 《劉震雲 소설의 인물과 서사 구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20쪽.

제1부분의 제3장과 제2부분은 제목이 모두 ‘당신은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你認識所有人)’이고, 내용도 “일 년이 지나갔다.”⁹⁾로 제목과 내용이 동일하다. 어떠한 수식이 없는 간결한 이 구조는 암시와 함축의 효과를 내며, 하나의 장과 하나의 절에 한 문장밖에 없다는 점은 매우 파격적인데 이러한 구조는 《고향의 국수와 꽃》 제3권의 제1장 ‘노래 한 곡(歌一曲)’¹⁰⁾에서도 보인다.

《네티즌 시대의 젊은이들》은 전체 내용이 297쪽에 달하지만 附錄1이 3쪽, 附錄2가 2쪽에 불과하며, 본론에 해당하는 正文은 16쪽밖에 안 되는데 이 소설도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처럼 머리말과 正文의 비율을 뒤집는다. 이 작품도 前言과 正文의 편폭이 전도되었는데, 류전원의 작품은 正文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으로 작품별 附錄의 명칭과 위치 및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작품별 附錄의 명칭과 구조

형식	작품	附錄의 명칭과 구조
단독 附錄 형식	〈1942년을 돌아보다〉(1993)	· 附錄: 맨 뒤 · ‘본문+附錄’ 구조
	《고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1993)	· 附錄: 맨 뒤(제4단 뒤) · ‘본문+然後+본문+附錄’ 구조
본문과 附錄의 반복 형식	《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1991)	· 附記: 각 장의 뒷부분(5회) · ‘前言+附記+前言+附記+之後’ 구조
	《고향의 국수와 꽃》(4권)(1998)	· 附錄: 제1권(1회), 제2권(3회), 제4권(11회) · 四部總附錄: 제4권 제10장 · ‘前言[附錄]+正文[附錄]+四部總附錄’ 구조

9) 劉震雲, 《吃瓜時代的兒女們》,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17, 184頁, 269頁, “一年过去了.”

10) 전체 내용이 “배경: 후닌(Junin) 전투 전장에서(背景: 胡寧之役戰場上)” 한 구절 뿐이다.

형식	작품	附錄의 명칭과 구조
附錄+正文 형식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2012)	· 附錄: 중간(제1장 뒤) · ‘序言+附錄+序言+正文’ 구조
	《네티즌 시대의 아이들》(2017)	· 附錄1·附錄2: 중간(제1부분 뒤) · ‘前言+附錄+前言+正文’ 구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류전원은 소설의 구조에 附記와 附錄과 四部總附錄, 前言과 序言, 正文과 插頁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附錄의 경우에는 명칭과 횟수와 위치 및 구조를 다양하게 운용하였으며, 《고향의 국수와 꽃》의 일부 章에는 네 개의 附錄을 붙이기도 했는데 이는 소설 본래의 형식과 거리가 먼 과격적인 시도로 작가의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Ⅲ. ‘附錄’의 서사 의도

본 장에서는 소설의 附錄에 나타난 서사 의도를 본문과 관련지어 서민의 일상에 대한 인식, 효에 대한 인식, 가정 문제에 대한 인식, 권력과 관료주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

1. 서민의 일상에 대한 인식

〈1942년을 돌아보다〉는 작가의 고향 허난에서의 기아 문제를 기록하였다. 본문에서는 1942년 당시 가뭄과 메뚜기 피해와 냉해 등 계속된 재해로 인해 풀과 나무까지 부족해지자 가족을 팔거나 바꿔 먹거나 자식을 잡아먹는 반인륜적인 일까지 벌어진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작가는 人吃人의 이러한 참상에 대해 항거하지도 않고 가족끼리 잡아먹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였다.

또한 인민들의 생존문제를 도외시하고 더 가혹하게 세금을 걷는 등 인민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장제스 정부를 비판하였다. 아울러 “이런 나라를 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¹¹⁾라고 반문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모른 척한다면 국민은 이런 국가를 버리고 매국노가 될 수도 있다는 급진적인 사상도 드러내었다. 이는 장제스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한편으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민들을 굶주림과 죽음으로 내몬 국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1942년을 돌아보다〉의 본문에서 작가는 역사와 민족과 국가 및 대기근이라는 거대서사를 거론한 데 이어 附錄에서 갑자기 미시서사인 서민들의 이혼 이야기로 전환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우리는 附錄에서 작가가 흥미를 느낀 것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작은 사건들’이며, 두 건의 이혼 성명을 통해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시 시대의 발전도 엿볼 수 있다.”¹²⁾라는 작가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는 1942년 당시의 대참사는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의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1942년 대참사를 통해 얻은 결론을 附錄으로 부쳤다. 류전원은 기존의 영웅 인물 묘사와 거대서사 방식이 아닌, 소인물과 그들의 생존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 소인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그들의 일상을 주로 묘사하는 작가이다. 인민들의 기아 문제와 민족과 국가에 관한 거대서사는 이야기에서 큰 주제이기는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거대서사보다 사소하고 작은 이혼 문제가 훨씬 더 절실한 문제이다.

류전원이 보는 서민들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하고 작은 일에 희비가 엇갈리며 작은 일에서 큰 즐거움을 느낀다. 서민들은 중국을 방문한 외국 지도자나 어떠한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가할 수 없지만,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돈 몇 푼 깎았다는 데서 승리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느낌이 바로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¹³⁾ 시장에서 과일이나 두부를 살 때 가격 흥정에

11) 류전원 저, 김영철 역, 〈1942년을 돌아보다〉, 《답털 같은 나날》, 서울, 밀리언하우스, 2011, 265쪽, “这个国又有什么不可以卖的呢?”

12) 같은 책, 268쪽, “可以看到时代的进步.”

서 승리하는 것이 국가 원수들의 주요 현안 체결 보다 더욱 실생활에 와 닿는 일이라는 말이다.

본문의 《大公報》나 〈허난 재해실록(豫災實錄)〉 혹은 〈타임지〉 등에 실린 주요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 附錄의 이혼 공고에 실린 문장은 매우 소박하고 서민적이며 속되게 묘사되었다. 이혼 공고를 보면, 한 사람은 배우자 펑(馮)씨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지기 어려워서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으며, 또 한 사람은 “아내인 쉬창(許昌) 사람 리우화(劉化)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날 밤 아내가 의복과 이불 등 모든 것을 갖고 도망쳐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¹⁴⁾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신문에 공고하여 널리 알린다고 하였다. 또한 ‘장인펑張蔭萍·펑씨 알림’¹⁵⁾, ‘언사괴묘촌偃師槐廟村 중정서가中正西街, 5호문, 티안광인田光寅 알림’¹⁶⁾이라고 하며 공고한 사람의 이름도 붙였는데 소박하고 속되며 민간적 풍치가 감돈다. 이들에게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나 역사 등의 거대한 문제보다 실생활과 관련된 자신들의 이혼 문제 같은 것이 절실하고 중요하며, 신문으로 널리 알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 동안 개인의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던 중국사회에서 개혁개방 후 개인의식의 제고에 따라 이혼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작가는 중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서민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과거에는 많지 않았던 이혼 문제를 들어 개인 의식을 이야기하였다. 작가는 附錄을 통해 인민들의 개인의식의 발로가 계속 이어져서 미래의 중국 사회가 개인의식과 인간 존엄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다. 본문에서의 주요 거대서사에서 한 발 물러나 서민들의 생활에 눈을 돌려 그들의 사소한 일

13) 張英, 《文學的力量》, 北京, 民族出版社, 2001, 236頁.

14) 김영철 역, 〈1942년을 돌아보다〉, 268쪽, “送貨鄙妻劉化許昌人該晚逃走將衣服被褥零碎物件完全帶走至今數日音信全無……”

15) 같은 책, 268쪽, “張蔭萍 馮氏 啓”

16) 같은 책, 269쪽, “偃師槐廟村中正西街門牌五號田光寅啓”

을 부각시켜 또 다른 주제처럼 다루었다.

이러한 서민의 일상에 대한 인식은 《고향의 국수와 꽃》의 일부 附錄에서도 보인다. 제4권 제1장에는 1969년에 바이스터우가 자전거를 처음 배운 이야기, 뒤에는 1969년 자전거를 산 이야기와 관련한 짧은 附錄이 첨부되어 있다. 작가의 외할머니가 자전거를 사 준 이야기를 바이스터우를 통해 펼쳐낸다.

附錄에서는 외할머니가 콩 70근을 판 45위안으로 바이스터우에게 자전거를 사 주신 이야기가 실려 있다. 아버지는 이 자전거를 살 때 처음 60위안에서 55위안, 50위안, 48위안으로 계속 흥정하여 결국은 45위안으로 깎는다. 아버지의 “이 흥정은 아버지의 존엄과 또 다른 짜수이탕(雜碎湯)과도 연관되며, 마지막에는 세상과 싸워 이긴 아버지의 의기양양함도 더해진다.”¹⁷⁾ 아버지는 돈 몇 푼을 깎기 위해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상대의 손을 잡고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흥정의 성공은 아버지에게는 ‘영광과 존엄’¹⁸⁾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만족스러워한다. 바이스터우에 이어 아래 두 동생들까지 물려받아 십여 년 정도 탄 자전거를 아버지는 또 다시 25위안이 아닌, 31위안에 팔고, 승리의 기념으로 짜수이탕을 먹을 때 국물을 세 그릇이나 더 추가해서 먹는다.

바이스터우의 아버지처럼 서민들은 사소한 작은 일에서 큰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데, 서민들의 사소한 일상에 큰 비중을 둔 이러한 소인물 서사는 <1942년을 돌아보다>의 附錄 부분과도 유사성을 띤다.

2. 가정 문제에 대한 인식

《고향의 국수와 꽃》의 附錄에는 가정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17) 劉震雲, 《故鄉麵和花朵》, 1677頁, “这个讨价还价还牵涉到一个为爹的尊严和另一场杂碎汤最后还加上他战胜世界的洋洋自得……”

18) 같은 책, 1677쪽, “荣誉和尊严……”

제4권 제4장에는 가정폭력 문제가 나온다. 본문에서 라오량(老梁) 할아버지가 여러 사람 앞에서 뉴리쿠(牛力庫) 할머니를 채찍질하여 죽인 일이 발생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 원인을 라오량 할아버지의 성격 문제, 할머니의 문제, 애정문제 즉 성생활 문제, 갱년기 문제, 기타 병적인 문제로 분석한다. 그런데 주로 할아버지들과 삼촌들과 형들 등 남성 가부장제의 수혜자들은 이 일을 할머니의 문제로 몰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附錄에서는 라오량 할아버지의 폭력성과 성격과 그의 피를 물려받은 가족들의 이야기이다. 1939년 아이를 못 낳는 첫째 외할머니 내외에게 류전원의 어머니가 입양된다. 동생인 둘째 외할아버지는 질투심과 가정에서의 주도권 등의 이유로 그의 6살 된 딸 메이쯔(梅字), 즉 류전원의 이모에게 連珠瘡를 제때 치료해 주지 않아, 결국 이모는 죽게 된다.

둘째 외할아버지는 라오량 할아버지의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하였다. “누가 이 가족의 주인인지—이는 또 정치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라오량 할아버지를 모방해서 할아버지처럼 성과를 얻어 이 세계를 장악하려 하였다.”¹⁹⁾ 권력의 집행 방법이 가정에서 정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라오량 할아버지가 아니었고, 그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가장 아끼는 딸을 잃어버렸다.

1955년에는 둘째 외할아버지를 보고 배운 귀가 어두운 큰아들 류허장(劉賀江) 외삼촌에게 일이 벌어진다. 당시 둘째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소금에 절인 오리알 분실 일로 화가 난 외숙모를 강제 진압하자 외숙모는 셋째 아들을 초가에 버려두고 젖을 주지 않아 아기는 태어난 지 12일 만에 숨을 거둔다. 10년간 순한 양처럼 참아오던 외숙모는 마침 아기의 수두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기회로 인내에서 반항의 태도로 바꾸고 아들 진청(金成)의 죽음으로 이들에게 복수한다. 협박과 애원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밀고 나간 “외숙모가 원한 것은 가정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역사상의 지위이다.”²⁰⁾ 그래서 외숙모는 마을의 새로운 정신적인 지주로 떠오르

19) 같은 책, 1841쪽, “谁是这个家族的主人——这又涉及到政治了——于是就对老梁爷爷东施效顰想像老梁爷爷一样四两撬千斤地掌握和把握这个世界……”

게 된다.

뉴리쿠 할아버지와 둘째 외할아버지와 외삼촌과 외숙모는 가정에서의 지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타고난 성격인 오기와 폭력성을 갖고 있었다. 이 중 라오량 할아버지와 둘째 외할아버지와 외숙모는 피눈물 나는 사건으로 자신의 견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은 가정에서의 霸權 기도가 가정 폭력의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로, 가정에서의 권력 싸움과 가정폭력의 희생양은 주로 메이쯔와 진청 등 힘없는 아이들이었다.

제5장의 ‘구호와 호박’에서도 가정에서의 주도적 위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附錄에서 뉴건(牛根)이 黃河에 몸을 던진 이유는 아름다운 첸뉴(牽牛)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자신도 아버지처럼 수동적인 혼인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²¹⁾ 나중에 뉴건 자신이 뛰어든 곳도 黃河가 아니라 우물이라고 밝힌다.

가정에서 힘없는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는 《고향의 국수와 꽃》 제4권 제8장 ‘외삼촌(娘舅)’의 附錄에서도 보인다. 부모의 죽음으로 가장이 된 작가의 똥보 외삼촌은 아래로 세 명인 여동생들을 곡식을 받고 팔아버린다. 작가의 둘째 이모는 8살 때 자신보다 15살 많은 곰보에게 민머느리로 팔려갔고, 셋째 이모는 5살 때 곡식 다섯 말에 맹인에게 시집가서 새벽부터 집안일을 했으며, 시부모와 남편 형제들과 손위 동서들에게 모진 구타를 당했다. 외삼촌은 한 살인 작가의 어머니도 곡식 두 말을 받고 팔았는데 다행히 인자하신 외할머니가 곡식 열 말을 내고 작가의 어머니를 거두어 주셨다.

제8장 附錄1에서 어머니가 목을 매고 자살한 똥보 친외삼촌을 비난하자 마이스터우(제4권의 서술자)는 ‘역사와 예술을 위해서’라며 어머니의 말을 제지한다.

이어서 附錄2에서는 역사와 예술을 위해서, 어머니가 팔려갈 때부터 시

20) 같은 책, 1845쪽, “她要的不是家庭中的地位而是历史上的地位.”

21) 王麗, 《非夢與花朵——論劉震雲小說《故鄉麵和花朵》》, 山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10頁.

작해서 똥보 외삼촌과 관련된 이야기는 수정과 보충을 거쳐 다시 정리된다. 작가의 어머니가 팔려간 시기, 어머니가 인자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딸이 된 이후 외할아버지 내외가 어머니의 종기를 치료한 일과 어머니가 돈주머니를 줌과 난 이후의 훈훈한 일, 앞에서 생략된 바이스터우와 형제들이 대학에 간 일, 1995년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여윈 일 등이 수정을 거쳐 서술되는데, 어머니의 일대기이자 외할머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附錄의 몇몇 장면은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 마디》에서 재현된다.

이상의 예에서 보면 어른들의 주도권 싸움과 폭력 등으로 인해 힘없는 가족 구성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가장의 폭력 아래 살해와 인신매매와 아동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제4권 제8장의 附錄에 와서 이전의 외삼촌과 어머니의 황당하고 거칠고 잘못된 이야기나 빠진 부분은 다시 수정을 거치면서 내용에 아름답고 훈훈한 요소가 첨가되는데, 작가는 고향 이야기, 고향의 역사에 긍정적인 면도 있음을 부각하였다.

3. 효에 대한 인식

《고향의 국수와 꽃》(제4권) 제2장에서 남편 뉴산진(牛三斤)과 사별한 뤼구이화(呂桂花)는 附錄에서 후마(胡馬)촌의 우산양(吳三羊)에게 재가한다. 뤼구이화는 1969년에 바이스터우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아름다웠으나 1996년에 다시 그녀를 봤을 때는 허리도 굽어져 쪼그려 앉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남자처럼 굽어졌으며, 통통 부은 얼굴의 눈 아래 살은 축 늘어져 있었다.

중년의 뤼구이화는 다 찌그러져 가는 친정집에서 십여 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이웃에게 매일 고기를 사 달라고 부탁해 매일 75세의 반신불수인 아버지에게 만두를 빚어주고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수발했다. 아버지가 “딸아,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마라. 애비에게 이렇게 잘해주면 반달 후

네가 위먼(玉門)으로 떠나가면 나는 어떻게 다시 살아가라고 그러니?”²²⁾라고 걱정한다. 뤼구이화는 비록 아버지가 반신불수라도 자신이 친정집에 와서 불렀을 때 대답해 주는 아버지가 있어서 다행이라 여긴다.

이러한 내용은 제4권 제8장의 附錄 내용과도 상통하는데, 작가의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어머니’라고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비로소 고아가 되었음을 절감했다고 하였다.

또한 뤼구이화에게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는데 작가는 부모를 생각하는 뤼구이화의 선량함과 인내심을 통해 전통적인 덕목인 ‘孝’의 발양을 이야기하려 하였다.

《고향의 국수와 꽃》 제4권의 제6장에는 짧은 4개의 附錄이 있다. 附錄에서는 시창(西莊)의 외할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인 동창(東莊)의 류바오(劉寶) 할머니가 저녁에 연극을 보기로 하고 헤어진 동시창(東西莊) 다리를 중심으로 이들의 우정과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였다.

1969년의 동시창 다리는 외할머니가 수욕 한 덩이를 류바오 할머니에게 보내주고 이후 류바오 할머니가 외할머니를 배웅해 준 다리이다. 또 외할머니는 류바오 할머니와 이 다리에서 황급히 헤어진 후 열이 있는 외손자에게 귀한 계란을 볶아 주셨다. 작가는 류바오 할머니의 손주 며느리의 입을 통해 류바오 할머니 가족에 대한 외할머니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네 개의 附錄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절친한 두 사람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한편, 외할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외할머니를 그리는 작가의 효심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고향의 국수와 꽃》은 고향 서사를 통해 권력과 사회를 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고향의 역사이자 외할머니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고향은 단지 하나의 배경에 지나지 않으며, 전면에는 움직이는 거대한 외할머니가 계셨다. 상냥하고 자상하고 인자하신 외할머니는 이 세상의 희망”²³⁾이라고 작

22) 劉震雲, 《故鄉麵和花朵》, 1714頁, “妮儿, 你不要对我这么好. 你要对爹这么好, 等你半个月后回了玉门, 让我如何再活下去呢?”

가는 평가하는데, 외할머니에 대한 작가의 사랑과 찬사 및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소설에서 외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안배한 몇 장의 插頁, 그리고 四部總附錄의 〈투숙〉에서 노모를 외할머니로 바꾼 설정 역시 의도성이 다분한데, 외할머니를 추억하고 그리는 작가의 심정을 표출하였다.

4. 권력과 관료주의

권력과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고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와 《네티즌 시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고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제4단의 附錄 부분에는 지방 순시를 온 지도자와 주민의 대화 장면이 나온다. 마침 이날은 105명의 마을 사람들이 일곱 번째로 한꺼번에 굶어 죽어나간 날로, 천여 명이 넘던 마을 사람들은 수십 명만 살아남는다. 두 살인 ‘내’가 외할머니 등에 업혀 엮인 시내에 갔다 올 때 들관을 가득 메운 시체들을 목격하게 된다.

류전원은 대약진운동 시기 관료들의 허위 보고의 원인을 주단의 입을 통해 고발한다. 나오 외삼촌 지서를 타도한 주단은 나오 외삼촌이 “대약진 때 승진의 방법으로 지도자에게 비위를 맞추고 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하여, 만들어 놓은 케이크가 또 물에 떠밀려 가 버려 오늘날 모두가 배를 굶주리는 국면이 된 것”²³⁾이라고 분석했다. 附錄에서 금년은 풍작이며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하려는 한 서기도 마찬가지이다. 그에게는 치적을 부풀려 보고하여 지도자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승진과 안위도 보장 받으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료들의 이러한 태도는 국가 재

23) 같은 책, 225쪽, “故乡只是一个背景, 前边是一个活动的巨大的姥娘, 和蔼可亲, 慈眉善目. 你是这个世界的希望.”

24) 劉震雲, 《故鄉相處流傳》, 北京, 華藝出版社, 1993, 299頁, “接着又说起跃进时为了一个升官得道, 讨好领导, 虚报产量, 堆双井蛋糕, 蛋糕角又被大水冲去, 才有今天大家饿肚子局面.”

난 초래에 일조했다.

잠옷 차림으로 내린 지도자는 그곳이 수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어 나가는 곳임을 모르고 외할머니에게 마을에 누가 죽었는지를 묻는다. “한 서기는 노부인을 향해 손을 휘젓지만, 이미 굶어서 정신이 나간 노부인은 한 서기의 뜻을 이해 못하고 빨리 말하라는 의미인 줄 알고 바로 말한다.”²⁵⁾

외할머니의 입을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아사자의 이름 및 ‘나’와 외할머니가 목격한 들판을 가득 메운 시체들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연이은 자연재해를 거치면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한²⁶⁾ 당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나오 외삼촌은 “마오 주석께서도 고기를 안 드신다니 우리도 (송충이를) 먹지 말고 설 설 때 먹자.”²⁷⁾라고 하는데, 이는 마오쩌둥의 ‘三不’²⁸⁾ 제창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작가는 지도자의 점심 식단을 ‘홍사오러우(紅燒肉)’로 안배했다. 외할머니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죽기 전에 홍사오러우를 먹고 싶어 했다는 말을 들은 “지도자는 한동안 속이 거북해져 몸을 돌려 기차에 오르면서 ‘출발해!’ 하고 지시하자 열차는 바로 출발해 버린다.”²⁹⁾

25) 같은 책, 329-330쪽, “韩书记向老太婆摆手, 但老太婆已饿昏了头, 不知韩什麼意思, 以为是让快些, 便说……”

26)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으로 대약진 기간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수치는 2천만 명이 넘는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왕단은 대약진운동 기간 중 사망자 수는 4천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폭력과 정보 차단과 여론 조성으로 참상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대규모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1961년 류샤오치(劉少奇) 주석도 대기근의 3할은 천재이고 7할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왕단, 《왕단의 중국현대사》, 서울, 동아시아, 2013, 113-116쪽. 이는 국가 정책의 실패로 국가와 인민에게 대제앙을 초래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27) 劉震雲, 《故鄉相處流傳》, 294頁, “据说毛主席都不吃肉了, 我们也不吃, 等着过春节时再吃.”

28) 일찍이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으로 야기된 심각한 식량문제로 많은 인민이 기아로 죽어나가자 옥류와 달걀을 먹지 않고 식사도 정량을 초과하지 않겠다며 ‘三不’을 제창하기도 했다. 遼國英·察鳳娥, 《毛澤東與50年代的生產“大躍進”運動》, 《中共太原市委黨校學報》第3期, 2004, 31頁.

29) 劉震雲, 《故鄉相處流傳》, 331頁, “领导人感到一阵反胃, 转身上了火车, 说:

지도자가 몸을 돌려 열차로 도피하는 행위에서 우리들은 엔진을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의 심리를 알 수 있는데, 홍사오러우는 지도자에게 아사자가 도처에 널린 공포스러운 장면을 떠올리게 하였다. 재난이 현실로 되었을 때 지도자의 잠재의식 속의 반응은 도피로 나타난다.³⁰⁾ 그래서 지도자는 이후 공포심을 일깨우는 홍사오러우를 먹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았듯 附錄에서 한 서기가 계획한 허위 보고 내용과 상반된 노파의 말, 지도자의 식단인 홍사오러우 설정 등에는 작가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작가는 附錄에서 외할머니와 한 서기와 지도자의 만남을 통해 권력자의 위선과 권력 비판이라는 소설 전체의 주제이자 자신의 의도를 담아냈다. 또한 작가는 대약진 당시 유토피아를 중국에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에 부응하여 생산 초과달성에 집착하여 부풀려서 생산량과 치적을 허위보고하는 지방 관료들과 이로 인해 기아로 내몰린 인민들, 지방 관료들과 중앙지도부간의 보고 단절 및 지도자의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국가경제가 파탄이 난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였다.

《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의 각 장 뒤에는 附記가 첨부되어 있다.

제1장 附記에서 쉬부다이(許布袋)와 쑤마오단(孫毛旦)이 되찾아 온 촌장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될 소지나 조짐이 있으면 미리 손을 써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구를 만들어 후환을 없애 마을 사람들을 제압했기 때문이다.

제2장 附錄에는 항전시기 쑤스건과 리샤오우(李小武)와 루샤오투(路小禿)가 각자의 목적으로 야심차게 계획한 일본군 격퇴 작전이 실패하며,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자 이를 기회로 이웃에서는 물건을 훔쳐가고 심지어 관을 팔러 와서 흥정하는 소리로 시끄러워진다. 개인의 권력욕과 이로 인해 빚어진 참극 속에서 물질을 쫓는 사람들의 왜곡된 인성을 보여 주고 있다.

‘开车!’ 车子马上就开了。”

30) 陳思, 〈試論劉震雲小說文本邊緣的消解力量——以《故鄉相處流傳·附錄》為例〉, 《廈門城市職業學院學報》第11期, 2007, 84頁.

제3부분과 제4부분의 附記에서는 국민당에 입대해서 권력을 쫓아 출세 하려는 리샤오우와, 팔로군에 입대해 평생 권력을 추구해 온 쑨스건의 일생을 통해 권력투쟁의 잔혹성과 권력의 부질없음을 보여주면서 소설의 주제를 드러내었다. 시대적 상황이라는 전제 앞에서 권력을 향한 집념과 노력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다.

또한 라이허상과 함께 권력찬탈에 참여해서 성공한 웨이둥과 웨이바오는 “1년 넘게 같이 일해 보니 라이허상도 자오즈웨이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³¹⁾을 깨닫는데, 권력자가 누가 되든 모두 마찬가지로라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서 나오 외삼촌과 주단의 권력투쟁과 및 《고향의 국수와 꽃》의 여성 합체인 네 명의 공포정치에서도 보인다. 이러한 주제사상은 권력서사를 다룬 고향삼부곡의 공통된 주제이기도 하다.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는 관료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리쉐롄(李雪蓮)은 사실을 날조하여 자신의 존엄을 훼손한 전 남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인민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공무원들도 같이 고소한다.

附錄에서 주칭롄(朱清廉) 省長은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지도자로부터 리쉐롄의 일에 대해 지적을 들은 후 일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곧바로 관련된 공무원들을 모두 파면해 버린다. 작가는 지도자의 분노와 함께 省長의 이러한 조치는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을 더 망친 것임을 알려준다. 지도자는 잘못을 알지만 省長의 조치를 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일처리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일을 잘못 처리한 주칭롄은 관직생활을 순탄하게 이어간다.

正文에서 과거 省長의 조치로 파면된 스웨이민(史為民) 전 縣長은 연말이라 기차표를 구하지 못하자 베이징 기차역에서 上訪[탄원]³²⁾이라는 장

31) 류전원 저, 김재영 역, 《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 서울, 황매, 2007, 583쪽, “通过一年多共事, 发现赖和尚和赵刺猬没有什么区别, ……”

32) 上訪은 일반인이 상급기관이나 상급 지도자를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난을 치고, 곧바로 체포되어 고향으로 호송된다. 힘 없는 인민들이 부조리를 고발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베이징으로 몰려드는 상황과, 이러한 인민들의 민원을 차단하려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은 작가는 ‘장난’의 형식으로 유머러스하게 꼬집었다. 序言에서 비교적 많은 편쪽을 할애해서 正文을 위한 초석을 깬 뒤 짧은 正文에서 작가의 의도를 나타내었다.

관료제 사회인 중국에서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악습이 봉건시대부터 행해졌으며, 현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작가는 관료주의에 젖은 관료들과 이들을 대량 파면한 성장, 그리고 성장의 잘못된 처사에 분노하는 지도자를 통해,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관료들이 인민들 위에 군림하고 귀찮다고 일을 미루며,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최우선시하는 관료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지도자도 귀찮은 일을 미루는 태만한 관료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작가는 이러한 관료들을 통해 인민들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현재 중국의 관료주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주역인 왕단은 1976년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 인민들이 정부에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신세대 젊은이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³³⁾ 이 사건은 젊은 세대들이 주도한 1989년 6·4 천안문사태를 잉태시켰으며, 젊은 세대들이 현대의 정치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네티즌 시대의 젊은이들》은 정보화 사회의 인터넷 문화의 발전과 네티즌의 인터넷 정치 참여를 반영한 소설이다.

《네티즌 시대의 젊은이들》의 前言에서 뉴샤오리는 거액을 사기치고 도망 간 송차이샤(宋彩霞)와 돈을 찾는 과정에서 큰돈을 벌고 금의환향한다. 그러나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연히 공무원의 부패 사건에 연루된다.

‘附錄1’에서는 교량 부실공사를 둘러싸고 네티즌들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露모되는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附錄2’에서는 미국으

행위를 말한다.

33) 왕단, 앞의 책, 253쪽.

로 도주한 자오핑판(趙平凡)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력의 權錢 결합과 정부의 언론 검열을 꼬집었다.

자오핑판은 리안방을 정치투쟁의 희생물이라고 하며, 자신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수많은 관료들과 거래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지만 이러한 보도 내용은 중국정부의 인터넷 검열로 곧바로 삭제되어 버린다. 자오핑판은 미국으로 망명 전 경제계의 유력인사였는데, 그가 사업에서 3백억 위안의 몸값으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때 갑자기 사업에서 물러나 민간인으로 돌아간 것은 자신의 안위가 국가권력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는 최근 미국으로 망명한 富豪 귀원구이(郭文貴)가 중국의 한 최고위층을 특정해 그의 비리와 성상납 동영상의 존재를 폭로한 사건과 닮았다. 해당 뉴스는 인터넷 검열로 바로 삭제되고 귀원구이는 부패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다.³⁴⁾ 소설 속의 자오핑판과 라오푸(老傅)는 부동산 재벌로 관료들과 權錢거래를 하는데 귀원구이 역시 부동산재벌이다. 권력층 비리와 성상납 동영상 및 언론 차단 등을 둘러싼 소설과 귀원구이 사건의 판에 박은 듯한 유사성은 류전원의 사회문제 인식의 정확성 및 현실사회 반영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리안방 성장과 양카이튀 등 관료들은 업무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거나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급속한 전파력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은 발언하고 교류하며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소설처럼 관료들의 비리도 드러낼 수 있다. 그 대상이 고위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여 여론 형성을 차단한다.

正文에서는 발마사지 업소에 들렀던 마중청(馬忠誠)과 말라깽이의 대화를 통해 公安이 유흥업소를 협박해 국민들을 등치는 세태를 고발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와 《네티즌 시대의 젊음이

34) <귀원구이, 또 왕치산 ‘저격’...“성상납 덮으려 판빙빙에 탈세 혐의”>, 조선일보, 2018.10.11.

들》은 ‘附錄+正文’의 형식을 소설의 구조에 사용하였다. 긴 序言과 前言에 이야기의 바탕을 탄탄하게 깔고 난 후 附錄과 正文에서 작가의 의도 및 주제를 밝힌 구조이다.

작가는 일반적으로 正文 뒤에 붙이는 참고 자료 성격의 附錄을 중요한 구조로 만들어 관료주의의 문제점과 언론 문제를 꼬집는가 하면, 부패 권력이 露毛되도록 안배하였는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또한 전체에서 10쪽과 28쪽에 불과한 짧은 正文에 작가의 의도를 담아 上訪 장난을 통해 관료주의 및 중국의 上訪 문제를 꼬집는가 하면 관료가 인민을 등치는 세태도 고발하였다.

특히 《네티즌 시대의 젊은이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네 명이 교량 사건과 네티즌의 참여로 附錄과 正文을 거치면서 관리들의 부패가 밝혀지고 하나의 사건이 되게 하였는데 작가의 치밀한 구도 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5. 미래에 대한 인식

《고향의 국수와 꽃》 및 제4권의 四部總附錄은 역사와 권력을 바라보는 류전원의 신역사소설의 총결이라 할 수 있다. 제4권 제10장 插頁의 四部總附錄에는 고전작품 세 편을 등장인물의 이름만 바꿔 실었다.

四部總附錄의 첫 번째 ‘投宿’은 忠義를 이야기한 《수호전》의 앞부분인 제2회 〈王進 교두는 延安府로 몰래 도망가고, 九紋龍 史進은 史家村을 크게 뒤흔들다(王教頭私走延安府九紋龍大鬧史家村)〉를 실었다. 高俅 태위의 미움을 사 도망가던 금군교두 왕진은 사가촌에 투숙하면서 사진의 무예 스승이 되는 내용이다.

탐관 고구(샤오류)의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왕진(바이스터우)의 처지를 통해 태위의 부패와 악행을 드러내었다. 작가가 忠義의 상징인 《수호지》를 언급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부패 권력에 맞서는 영웅의 도래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호전》의 영웅들이 국가의 부패 권력

과 부조리에 반항한 영웅이라는 점에서 작가는 사회 부조리에 침묵하기보다는 과감히 반항하고 비판할 줄 아는 영웅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소설을 실었다.

四部總附錄의 두 번째 ‘적(敵人)’에서는 《삼국연의》의 제120회 〈두예를 천거한 노장 羊祜는 새로운 계책을 올리고, 孫皓의 항복으로 천하가 통일되다(荐杜預老將獻新謀降孫皓三分歸一統)〉를 등장인물을 바꾸고 실었다. 이 장은 東吳 통치자의 횡포, 양호와 陸抗의 교분 및 두예를 천거한 양호의 죽음과 애도가 주요 내용이다.

《삼국지》는 통치자들의 무능과 부패 및 권력욕으로 인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인민들도 도탄에 빠진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東吳의 흥포한 昏君 손호(나오 외삼촌)를 통해 폐악을 부리는 지도자를 비판하는 한편 인민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晉의 고위관료 양호(샤오류)의 어진 정치를 칭송하였다. 晉의 충신이자 지략가에 德과 義로 어진 정치를 한 양호를 이야기하면서 부패관리가 넘쳐나고 관료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 양호 같은 어진 관료이자 영웅이 도래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四部總附錄 세 번째인 ‘벗이 멀리서 찾아오다(有朋自远方來)’에서는 허난 출신의 唐代的 현실참여 시인 白居易의 樂府詩〈琵琶引〉을 실었다. 백거이는 〈琵琶引〉에 자신의 신세를 기탁하였다. 인민들을 위해 현실을 개혁하려는 그의 애민정신은 관료들에 의해 곡해되어 좌천되는데, 백거이는 인민을 위한 정책은 관료들의 탐욕으로 인해 실현이 힘들며 요원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좌천된 지역에서 벗을 전송할 때 비파 연주가 슬퍼 모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중국의 슬픈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을 비판하는 《수호전》에서 영웅의 도래를 바랐고, 권력싸움인 《삼국연의》에서 권력투쟁과 어진 관료의 출현을 바랐으며, 애민의 마음이 담긴 〈비파인〉의 슬픈 어조에서 슬프고 비참한 사회현실을 나타내면서 인민을 어루만져 줄 관료의 출현을 바랐다.

고전의 삽입에서는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나 난폭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해 인민들이 큰 불행을 겪으며, 정의가 사라지고 부조리가 넘쳐나는

암울한 사회에서 인민을 위하는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류전원의 이상주의 내지 유토피아 의식을 반영했다고도 할 수 있다.

작가는 중국의 역사와 권력을 다룬 가장 인기 있는 소설을 四部總附錄으로 붙였는데, 이는 작가의 권력관과 역사관과 작가의식을 잘 대변해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四部總附錄을 통해 작가가 나타낸 고향과 역사에 대한 결론은 충의의 발양과 권력 비판 내지 청렴하고 이상적인 관리의 출현에 대한 희망이다.

IV. 나오는 말

이상으로 附錄의 형식과 그 의도를 살펴보았다.

류전원은 소설의 구조에 附記와 附錄과 四部總附錄, 前言과 序言, 正文과 插頁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류전원은 다양한 附錄 형식을 소설 구조에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附錄 형식의 운용과 실험성을 류전원 소설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고향의 국수와 꽃》의 특정 章에는 무려 네 개의 附錄을 덧붙이기도 했다.

작가가 이러한 부록의 형식을 취한 주된 이유는 가정폭력과 권력형 비리 등 사회문제에 대한 폭로 및 인민의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류전원은 附錄을 통해 서민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가정문제를 폭로하거나 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부조리가 넘쳐나는 사회현실에 직면하여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며 권력과 관료주의를 비판하거나 청렴하고 어진 관료의 출현을 희망하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상도 제시하였다. 류전원의 많은 작품이 권력과 관료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중국의 사회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작품 속에 잘 구현해 내는 작가임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소설에 附錄을 붙인 점은 상징적 구조 설정으로, 작가의 의도성이 다분

히 보인다. 작가는 간과하기 쉬운 참고 성격의 附錄을 의도적으로 소설 서사 구조의 중요한 일부로 짜 넣음으로써 가정문제를 폭로하거나 권력을 비판하고 공직자들의 비리를 폭로하였다.

특히 附錄이라는 색다른 구조 설정을 중국의 사회상황에 비추어 설명할 수도 있다. 附錄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작가는 역으로 이용한 셈인데, 어떤 작품에서는 작품의 주제를 그 구조 속에 露呈시킴으로써 그 附錄 부분을 더 중요한 구조의 일부로 만들고 있다. 이는 중국의 언론통제 문제를 반영한 상징적인 구조 설정이다. 일부러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은 사항을 통해 그 이면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중국사회의 언론 표출의 방법과 많이 닮아 있다. 소설의 구조와 사회의 한 특정 구조와의 유사성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附錄'이라는 외형적 내지 형식적 구조를 이용하여 작가의 내면적 생각을 주장한 매우 특이한 구조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구조 설정 상에서 작가의 치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만하다.

<참고문헌>

- 김현주, 《劉震雲 소설의 인물과 서사 구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류전원 저, 김영철 역, 《닭털 같은 나날》, 서울, 밀리언하우스, 2011.
- 류전원 저, 김재영 역, 《고향 하늘 아래 노란꽃》, 서울, 황매, 2007.
- 류전원 저, 문현선 역,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성남, 오피스프레스, 2015.
- 왕단, 《왕단의 중국현대사》, 서울, 동아시아, 2013.
- 陳思, 〈試論劉震雲小說文本邊緣的消解力量——以《故鄉相處流傳·附錄》為例〉, 《廈門城市職業學院學報》 第11期, 2007.
- 陳曉明, 〈“喊喪”、幸存與去歷史化——《一句頂一萬句》開啟的鄉土干敘事

- 新面向》，《南方文壇》第5期，2009。
- 陳曉明，〈故鄉麵與後現代的惡之花——重讀劉震雲的《故鄉麵和花朵》〉，《解放軍藝術學院學報》第3期，2004。
- 劉震雲，《故鄉麵和花朵》(全4卷)，北京，華藝出版社，1998。
- 劉震雲，《故鄉相處流傳》，北京，華藝出版社，1993。
- 劉震雲，《故鄉天下黃花》，北京，作家出版社，2009。
- 劉震雲，《我不是潘金蓮》，武漢，長江文藝出版社，2012。
- 劉震雲，《溫故一九四二》，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9。
- 劉震雲，《吃瓜時代的兒女們》，武漢，長江文藝出版社，2017。
- 金麗霞，《走不出的困惑》，黑龍江大學碩士學位論文，2004。
- 摩羅，〈劉震雲：奴隸的痛苦與耻辱〉，《當代作家評論》第4期，1998。
- 遼國英·察鳳娥，〈毛澤東與50年代的生產“大躍進”運動〉，《中共太原市委黨校學報》第3期，2004。
- 王麗，〈非夢與花朵——論劉震雲小說《故鄉麵和花朵》〉，山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3。
- 張英，《文學的力量》，北京，民族出版社，2001。
- 〈귀원구이, 또 왕치산 ‘저격’...“성상납 덮으려 판빙빙에 탈세 혐의”〉, 조선일보, 2018.10.11.

< Abstract >

Liu Zhen-Yun uses various appendix forms in the structures of his novels, managing these forms and conducting its experiment are characteristic of his novels. Especially, he adds four appendixes in the particular chapter of the 《Guxiang Mian he Huaduo》.

Liu Zhen-Yun not only tells us daily lives of ordinary people through the appendixes, but tells us disclosure of family problems or filial duty.

Also he presents a vision and an utopia of Chinese future, criticizing power and bureaucracy and hoping emergence of government officials of integrity and benignant. It is his deep awareness of serious problems in the Chinese society of those days that his novels deal with problems of power and bureaucracy.

Setting-up an appendix in a novel is likely to be a structural symbolism on purpose. He discloses family problems or criticizes power and exposes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by intentionally inserting an appendix like a reference prone to look over as important part of a narrative structure.

Epecially an unusual structural set-up of an appendix explains a Chinese social situation of those days. He inversely uses original meaning of an appendix. This makes the appendix more important part by revealing theme of a novel in its structure. And this is a set-up of a structural symbolism that reflects an issue of the freedom of speech in China. This takes after expression of Chinese journalism that claims inside calmativ through an issue unconcerned.

Also this secretly reveals a similarity between a structure of a novel and a particular structure of a society. It is a set-up of a special structure that claims his inside idea by using an external and internal structure of an appendix. And this shows his literary accuracy in the structural set-up in a novel.

Key Words : 劉震雲(Liu Zhen-Yun), 附錄(appendix), 서민의 일상(daily lives of ordinary people), 가정 문제(family problems), 권력(power), 관료주의(bureaucracy).

